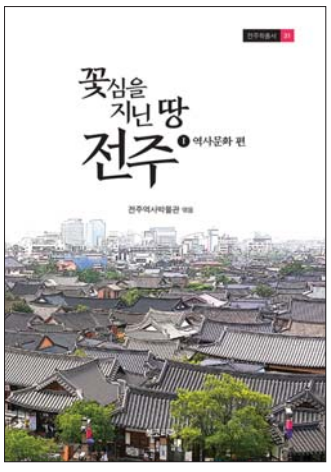
전주 역사문화 살펴보기

▶ 전주역사박물관, '꽃심을 지닌 땅, 전주' 1 · 2권 발간

1권 '역사문화를 다루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전주의 모습 '한눈에'

2권 '전주의 문화유산'
도시 · 문화 · 교육 등 6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전주의 역사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 다룬 〈꽃심을 지닌 땅, 전주〉Ⅰ · Ⅱ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005년부터 전주학의 중심지로서 각종 연구 · 조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전주학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책의 표제인 '꽃심을 지닌 땅, 전주'는 소설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이라 칭하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차용했다.

Ⅰ권은 역사문화편으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 땅이었으며, 각 시대 전주가 어떤 위상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수록했다.

1편 총론에서는 전주 역사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2편 고대 전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

3편 중세 전주에서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고려시대에 처음 사용된 '전라도'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의 중심도시로 기능한 전주를 조명했다.

4편 근세 전주에서는 풍패지향이자 전라감영이 설치된 호남제일성으로서의 전주의 모습을 담았다.

또한 임진왜란 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의병들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2천리 여정을 소개하였다.

5편 근대 전주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천주교와 성지였으며, 간재 전우 등 높은 학식의 선비를 배출한 땅인 전주를 담아냈다.

6편은 문화예술편으로 맛깔스러운 음식, 세계무형유산 중 하나인 판소리, 우리 종이 한지와 전주에서 출판한 책인 완판본, 선비정신을 담은 서화 등 문화예술의 땅인 전주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 Ⅱ권 문화유산 편은 역사유적부터 도시 · 문화 · 교육 · 종교 · 지리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주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코스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1편 역사유적에서는 중요한 역사현장으로써의 전주 문화유산들을 담아낸다.

2편 도시유적은 고고유적부터 현재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한옥마을의 곳곳까지 조명했다.

3편 문화유적에서는 전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산들을, 4편 교육유적에서는 전주향교 · 화산서원 등 전주에 남아있는 서원과 향교를 소개한다.

5편 종교유적에서는 천주교 등의 종교유적들을, 6편 지리유적에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한 전주사람들의 흔적과 비보풍수 · 옛길 등이 실렸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 한국의 전통 식생활 교육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전통 식문화의 특징과 상차림, 식사 예절 등 '한국의 전통 식생활'에 대해 배워보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당 3층에 마련된 시루방(조리체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건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식생활 교육 뿐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올바른 조리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조리실습'이 더해질 계획이다.

강의는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전효진 교수와 (사)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김이수 원장, 한국조리기능장 차경옥 박사가 진행한다.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식생활 교육의 이해, 한국 식재료의 이해, 절기음식의 이해 등을 담은 이론교육과 관능 · 미각 교육, 건강한 음식궁합,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등 실습이 총 8회에 걸쳐 병행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배부된다.

수강생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시 · 공고 게시판에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28일 정오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에 기초한 이번 교육은 사라져가는 향토음식의 보존 · 대중화와 지역의 제철 식재료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전통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무형유산 원정대, 겨울방학 이야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오늘부터 2일간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겨울방학의 끝자락,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물하고자 무형유산 겨울방학 캠프 '무형유산 원정대, 겨울방학 이야기'를 27~28일 양일간 운영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으로 구성된 35명의 학생들은 무형유산 이수자들로부터 택견과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존중의 마음을 배우는 '택견'과 '나도 판소리 소리꾼'을 비롯하여 금속 등의 재료에 유기질을 녹여 장식하는 '칠보공예' 체험실습, 무형유산 퀴즈대회, 전통 놀이 실습, '나도 예술가' 발표회 등 다양한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게 된다.

무형유산원의 이번 캠프는 예술 · 기술 종목을 배울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팀을 꾸려 공연 · 기획 · 연출 등 주도적 예술 활동을 실현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숨겨진 역량을 찾고자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 동문 문화예술 거리 조성 추진

동문동맹 기획단 내달 출범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전주 동문거리 일원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개인)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시민 · 예술가 · 주민이 함께 동행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이를 위해 청년작가 · 문화기획자 ·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문동행기획단을 오는 3월에 출범하여 지역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단은 그간 동문예술거리조성사업(2012~2016년)을 통해 조성된 전주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동문길60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동문거리 내 변화된 여건 분석 및 청년작가 간담회, 거리 내 주요 상가방문, 지역민(예술가 ·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 12여개의 문화예술단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협력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9일에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나우)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세부사업의 대표격인 '동문예술장터'는 지역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가 · 청년작가 · 문화예술단체 · 사회적기업 · 상가주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다. 매월 1회(4월~10월) 동문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술장터에는 한 평 그림가게 · 프리마켓 · 동문극장 · 체험마켓이 오후에, 모발 나눔 콘서트가 야간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창작지원센터 · 전주시 공연예술 협력사업'과 '동문길60 체험마켓 · 수작수작(秀作, 빼어난 작품을 만들다)'은 협력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창작지원센터 · 전주시 공연예술 협력사업'은 정기공연 단체 공모 · 정기대관 단체 공모(유료) · 무료 공간지원 사업 · 지역 교류활성화 사업 등 지역 교류활성화 사업 연계를 통해 전주시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체험 · 전시 · 판매를 연계한 '동문길60 체험마켓 · 수작수작'은 지역작가(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이외에도 시민 예술가를 지원하는 '동문그림가게',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 프로그램 '동문예술학교', 청소년 지원사업인 '동문예술캠프'가 운용 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동문예술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함께 동행 하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중 3월부터 진행되는 세부사업의 운영단체 공모는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jjc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고창문화의전당 하우스콘서트 '위솔로이스츠'

새로운 클래식 선보인다

내일 오후 7시 30분 공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하우스 콘서트' 위솔로이스츠(WE Soloists)의 실내악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열린다.

'하우스 콘서트'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연주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작은 공연이다.

'위솔로이스츠'는 클래식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현재 국내 · 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등 다양한 클래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아 온 몸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객석의자가 아닌 무대 위에 앉아서 관람하며 연주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군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우스 콘서트 외에도 군립도서관에서는 '시 · 낭송 · 그림을 만나다', 성호도서관의 '우리 선생님과 인문학 맛보기', 판소리박물관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 고창고인돌박물관의 학예사와 함께하는 '세계유산으로 떠나는 여행' 등 풍성한 문화의 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7년 2월 27일〉

▷쥐띠
4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고 유리한 운.
60년생: 꺼진불도 다시보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72년생: 식록에 길성이 들었으니 모임을 하거나 타인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될것이다.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소띠
49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니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는 불리하다.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원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

▷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좋으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른다.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먼저 베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감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할 뿐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되니 매사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89년생: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는 삼가라.

▷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것이 좋겠다.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뺨 맞는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라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이다.

▷개띠
46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때.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으나 오해를 사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받으려고 하지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여성은 밤늦게 다니면 흉한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